

로버트 바노이, 신명기, 강의 12

© 2011 Robert Vannoy 박사, Perry Phillips 박사, Ted Hildebrandt

신명기 12장 주석, 폴이 할와르다 에 추가함

1. “주 너의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 이라는 문구: Halwarda

이제 우리가 중단했던 곳인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 이라는 문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A. Holwarda는 문제가 “하나 이상”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장소가 인간의 임의적인 수단에 의해 선택되었는지, 아니면 그 장소가 신의 선택에 의해 선택되었는지 여부라고 결론 내립니다. 즉, 그가 하는 일은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 이라는 동사 바하르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하나인지 그 이상인지의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장소라는 점이며 단지 자의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Holwarda가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호소하는 몇 가지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 “만약 신명기 12장이 모든 제물을 한 곳으로만 드려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이 실제로 북쪽에 있는 단에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거리는 약 90마일입니다. 예루살렘에서. ” 그것은 희생을 바치기 위해 필라델피아에서 플로리다나 다른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가족과 같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길을 걸을 것이며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그는 그것이 적어도 일주일의 결석을 의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 Halwarda의 다중 제단 접근 방식 의 의미

제가 하고 싶은 것은 Holwarda 의 주장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실제 희생 대신 금전적 수단을 운반하는 것에 대해 다시 다루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운송에 더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나는 다시 돌아가서 신명기 12장의 전체 사상 흐름을 자세히 살펴보고 싶습니다. 나는 보다 최근의 연구에 기초하여 이에 적용할 홀와르다의 견해에 대한 수정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실제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이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는 매년 예루살렘에 가야만 했을까요? 레위인들에게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들은 이 사람들을 희생 제사 장소로 동행해야 했습니다 . 그들은 항상 길 위에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먼 곳을 오가는 여행을 하는 대신에 그냥 예루살렘에 머무르는 것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명기 12장은 단 하나의 중앙 제단, 하나의 합법적인 희생 장소만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다지 실용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실행될 수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무엘하 24장에서 성전이 선택된 곳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실 장소라는 암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벧엘의 제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도 합법성, 즉 승인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이 거기에 나타나서 그에게도 제단을 쌓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제단을 쌓을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주신 다른 장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 일부는 기록되었을 수도 있고 일부는 기록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마음에 드는 곳에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 신의 승인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물론 이것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다소 모호하므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홀와르다의 결론은 이스라엘에는 숭배를 한 장소에만 묶는 법이 없었지만, 이스라엘은 중앙 성소 옆에 지역 제단을 제공하는 법에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중앙 성소는 유일한 성소라는 의미가 아니라 장소의 우선권이 성전의 제단이나 이전에는 성막의 제단에 주어졌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이 합법적인 제단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곳. 그래서 규정된 곳은 제단을 쌓을 장소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어떤 식으로든 그것을 지정하실 것입니다. 제단을 만들 재료, 그리고 가져올 제물과 그것들을 가져오는 방법은 모두 오경의 율법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장소, 재료, 제물의 종류 등 각 영역이나 문제에서 자의성과 인간의 고안은 배제됩니다. 그것은 모두 규정되어 있었고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유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많은 제단을 마련하셨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곳곳에 제단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가나안 족속 가운데 살면서 자신들의 제단을 갖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으면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분과의 교제를 유지하기 위해 그분은 접근할 수 있는 제물을 바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셨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Holwarda의 입장입니다.

2. 신명기 2:1의 주석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신명기 12장으로 돌아가서 그 한 구절만 보는 대신 그 장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장을 따라 내려가서 그것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살펴봅시다. 나는 Holwarda의 해석을 따라 거의 다시 그것에 대해 몇 가지 논평을 할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이 있다면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는 “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규례와 규례이다. 본문을 보면 “율례와 법도” 가 나옵니다. Holwarda는 이러한 용어를

기본적으로 huqqim 과 mishpatim 과 같은 동의어로 간주합니다 . 그는 둘을 구별하려는 사람들이 후킴 은 원칙을 나타내고 미쉬빠팀은 특정 규정을 언급하거나 후킴 은 종교적, 제의적 요구 사항과 미쉬파티 민법 및 형사 요구 사항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 차이를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들을 기본적으로 동의어로 받아들입니다. 그는 6장 1절을 다시 지적하는데, 흥미롭게도 이 두 용어 앞에는 hamitzva가 붙어 있습니다. 지금 저는 킹제임스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는 문자 그대로 번역된 것이 아닙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계명과 율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고 말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계명” 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단수형입니다: “이제는 계명(mitzvah)이요, 율례와 규례는 이것이니라 .” 이제 Holwarda는 미츠바를 기본 요구 사항 또는 기본 계명, 즉 첫 번째 계명의 계명으로 받아들입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마십시오. 그것이 기본 계명입니다. 당신은 미츠바(mitzvah), 다른 신이 없는 기본 계명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는 기본 계명의 추가 실행으로서 후킴 (huqqim) 과 미쉬파팀 (mishpatim)을 갖고 있습니다 . 그래서 그는 6-11장이 주로 여호와께 대한 충성, 계명인 미츠바(mitzvah)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11장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 12장 1절에서 더 자세한 규정에서 더

나아가 그것의 실행 인 후킴(huqqim)과 미스파티팀(mishpatim)을 고려하기 시작합니다.

3. 신명기 12:2-4의 주석

흥미롭게도 12장은 제의에 대한 고려로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2계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어떤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지니라.”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차지할 민족들이 높은 산 위와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그 신을 섬기는 모든 곳을 네가 진멸하리라.”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이 모든 곳을 너희는 진멸할 것이요 그들은 파괴될 것입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들의 제단을 헐며 그들의 기둥을 깨뜨리며 그들의 우상들을 불사르라. 너는 그들의 신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깨뜨리고 그들의 이름을 그곳에서 멸절하라.” 그리고 4절에서는 “너희의 신 여호와께는 이같이 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너희는 켄을 행하지 말라”, “그러므로” 또는 “이와 같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는 “이렇게”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그것은 가나안 사람의 우상의 방식과 이방의 예배 장소에서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방의 성소에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그렇게 하지

말라.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예배 장소를 차지하게 되면,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과 이 이교 신들을 경배하는 것 사이의 날카로운 대조가 지워집니다. 그래서 6장부터 11장까지 훑어다니다가 느끼는 기본 개념은 여기 4절과 5절에만 표현되어 있고, 제2계명의 영역에서 실천된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 장소에 관한 벨하우젠과 그의 추종자들의 기본 가정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벨하우젠은 뭐라고 말합니까? 벨하우젠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산당을 점령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이스라엘의 예배는 가나안의 이교주의에서 발전했고 그들은 단지 가나안의 산당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야 예언의 영향을 받아 여러분은 그것에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말하는 것은 그것과 정반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곳을 다 멸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택할 곳에서만 예배하라 . 물론, 이스라엘이 항상 그 명령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그 명령은 거기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비록 그들이 항상 그것을 따르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그들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 따라서 사사기에서 그들은 일찍이 이교의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으며 사사기 2:1-5에서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Wellhausen의 논제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4. 신명기 12:5의 주석

5절 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곧 그 계시는 곳으로 찾아오라” 고 했습니다. 4절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 5절은 히브리어에서 ki' im으로 시작 합니다 . “ 그러나 그곳으로” 그것은 우리가 14절에서 본 것과 매우 유사한 표현입니다 .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방인의 장소와는 대조적이다.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너희는 그곳으로 갈 것이다 .

5. 신명기 12:6의 주석

6절, “너는 또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제와 너희 소의 첫 새끼와 양 떼를 그리로 가져갈지니라” 그러므로 제물은 5절에 규정된 장소로 가져가야 합니다. 당신은 그 장소로 가져갈 이러한 종류의 제물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 “거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고 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범사에 복을 주신 것을 인하여 너와 네 온 집이 즐거워할지니라.” 6절의 제물은 5절에서 먹되 모든 것이 함께 흐릅니다. 그것은 여호와 앞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너희는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여호와께서는 어떤 의미에서 그 곳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너희는 기뻐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제사는 가나안의 제사와 개념이 달랐습니다. 가나안 의식에서 제사는 마법적인 성격을 띠었습니다. 당신은 다산을 보장하기 위해 희생을 가져오려고 시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하는 땅의 비옥함은 신명기 8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송배나 희생은 마술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것을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사는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표현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므로 너는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네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너와 네 가족이 즐거워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6. 신명기 12:8의 주석

NIV 8절은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 같이 너희는 하지 말고 각 사람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라” 고 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녀는 현재의 관행에서 바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지 마세요. 각자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세요.” 그리고 그 변화는 희생의 장소를 존중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모세가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두고 변화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는 상황을 일종의 규제되지 않은 것으로 특징짓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 “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광야 기간에 대한 언급으로 이해하고 광야
 방황 기간 동안의 상황이 그랬다고 말합니다. 그 광야 기간 동안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Holwarda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홀와르다는 히브리어 본문에서 12장 8절을 보면 문자 그대로 "아세 르 ,
 아낙 누 , 우리가 오늘 여기서 하움을 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행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anaknu , 즉 "우리" Holwarda는 anaknu가 현재
 살아있는 세대, 즉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말한다고 말합니다 . ' os
 im , 우리' osim은 "행하고 있다"는 언급된 관행의 현재 지속적인 성격을
 나타냅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poh
 는 그것을 현지화합니다. 그것은 광야의 시간이 아니라 지금 여기를
 언급하는 것이며, 하움은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만듭니다: 오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것은 광야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조직된
 제의적 관습을 따르는 것이 가능하다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적들로부터 위협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헤매었습니다.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 그러나
 그들이 모압 땅, 즉 요단강 건너편 지역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전쟁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바산 왕 옥과 그 곳 동방 왕 시흔과 싸웠습니다.

7. 신명기 12:10의 주석

10절을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거하리라 여호와께서 네 사방의 모든 대적에게서 네게 안식을 주시리니 네가 그 땅에 거하리라” 고 했습니다. 안전.” 이제 그들은 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런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조건에서는 출애굽기 20:24에 언급된 규칙에서 벗어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 출애굽기 20장 24절에는 “내가 네게 이르는 곳에서만 제사를 드려라” 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오늘 여기서 하는 것처럼 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은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하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어디에서나 대부분의 희생을 치르십시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이 요르단 횡단 지역을 정복하면서 시혼과 옥과 싸웠을 때 불안한 시기가 시작되었고 그것이 현재의 관행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전황이 정상적인 질서를 무너뜨릴 정도로 제사 장소를 임의로 정했고, 백성들은 어디에서나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 모세는 상황 때문에 그것을 변명합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것은 당신이 그 땅에 들어오면 상황이 바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어디든 희생만 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하지 마십시오. 각자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십시오.” 9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안식할 곳과 기업에 아직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현

상황에 대한 변명이 언급됐다. 그들은 아직 그 안식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앞서 논의한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언제 그들이 그 안식처에 도착할 것인가? 다윗 때까지는 아니었느냐? 여호수아 21장 42절과 22장 4절에 나오는 대로 정복 직후 여호수아 시대에 홀와 다가 제안한 대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확증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을 주신 땅에 거하라 여호와께서 너희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들에게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가 안전하게 살게 하시리라” . 나머지는 정복이 끝나면 시작됩니다.

8. 신명기 12:11-14에 대한 주석

11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실 곳으로 택하실 곳으로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 곧 너희의 번제물과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모든 예물과 모든 귀한 것을 가져오라” 고 했습니다. 너는 여호와께 서원하였느니라.” 제사할 장소를 임의로 정하여 이기는 전쟁이 끝난 후에는 그 명령을 엄중히 받아들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한다. 12절은 7절과 거의 일치합니다.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읍에 있어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어다.” 13절, “너희는 임의로 번제를 드리지 않도록 삼가라.” 장소의 문제가 다시 강조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8절의 임의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 같이 각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해서는 안 된다.” 13절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가리킨다. “당신이 원하는 곳, 당신이 보기에 합당한 곳 어디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들이 그곳에서 하고 있던 일은 단지 불안정한 환경에서 발견한 제단을 사용하여 제물을 바치는 것뿐이었고 출애굽기 20장의 제단 율법은 실제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4절은 이렇게 결론짓습니다. “오직 너희 지파 중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만 그것을 드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지키라.” 현재의 자의성과는 대조적으로, 이스라엘은 나중에 희생 제물을 바치는 장소에 관해 규정된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9. 신명기 12:18-26에 대한 주석

이제 다시 요약하자면 이 장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가장 간단한 표현부터 시작해서 18절부터 26절까지 순서대로 정리했는데, 가장 간단한 형태의 표현이 나오네요. 18장과 26장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구절에서 강조된 한 가지는 장소의 선택이 여호와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 따라서 자의성에 반하여 그것은 장소의 선택입니다. 여호와께서 택 하실 곳이니라 11절로 가면 추가 요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니라 자기 이름을 거기 거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그 추가된 표현의 개념은 그러한 장소, 희생의 장소와 여호와와 그분의 자기 계시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희생의 장소를 자기 계시의 장소로 만드십니다. 그것은 자신을 나타내는 장소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이 오직 한 곳에만 머무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Holw arda는 그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이름을 한 곳에만 두실 수 없는 이유는 없습니다. 나중에 그것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고 싶지만 지금은 그것으로 남겨두겠습니다.

21절에서는 또 다른 추가 요소를 얻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 (11절과 21절)은 동일합니다. 14절에는 “네 지파 중 하나에” , 즉 “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지파 중에 택하실 곳” 이라는 추가 표현이 나옵니다 . 21절은 실제로 11절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반드시 “당신의 부족 중 하나”일 필요는 없지만 “당신의 부족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5절에 있는 마지막 표현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땅” 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문구를 하나로 모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입니다.

2. 열왕기상 8:16; 11:32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예루살렘에 관한 열왕기상 8장 16절의 표현과 연결시키려고 시도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6절은 특별히 5절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8장 16절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한 성읍을 택하여 내 성전을 건축할 곳을 택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름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다윗을 택하였느니라.” “내가 내 이름을 두어 거기에 둘 성을 택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열왕기상 8:16). 그 밖에도 열왕기상 11장 32절과 같은 많은 언급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있을 것이다.” 이제 Holwarda가 이에 대해 응답하는 것은 모든 텍스트에 있습니다. hammaqom 이라는 용어는 발생하지 않으며 장소가 아니라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에 차이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텍스트들은 희생의 장소가 아니라 특정한 지리적 위치, 즉 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중앙 집중화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빠르게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만 그것은 기본적으로 홀와르다의 신명기 12장 주석입니다. 내 생각에 홀와르다는 이 문제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신명기 12장을 읽는 방법을 제안하기 위해 복음주의 공동체에 정말로 봉사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내용을 훨씬 더 나은 관점으로 제시합니다.

3. 폴의 접근 방식: 국립 중앙 성소와 지역 제단

하지만 좀 더 최근에 매우 상세한 연구가 있었고 저는 이것을 여러분의 참고문헌에 올렸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네덜란드 학자이고 영어로 번역되지는 않았지만 6페이지를 보면 세 번째 항목인 MJ Pohl, *Het Archimedes Punt Van Pentateuch Kritiek*, *The Archimedean Point of Pentateuchal Criticism*, 1988입니다. 그게 바로 이 책이고, 이것이 전체 중앙화 문제를 책 한 권 분량으로 다룬 것입니다. 방금 출판되었습니다. 그는 Holwarda의 접근 방식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있다고 정말로 느낍니다. 내가 방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본 이 모든 것에 대한 그의 결론은 그는 신명기 12장을 그런 식으로 읽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약간 강요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 그가 하는 일은 최근에 이 책을 읽은 후 내가 동의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의 접근 방식이 Holwarda의 .

그는 홀와르다의 주석 의 가능성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 해석이 너무 강요적이며 신명기 12장이 중앙 성소를 하나만 허용할 뿐 제단의 다양성 문제를 다루지는 않는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즉, 그가 행하는 일은 그가 12장에 가서 예를 들어 2절과 3절을 읽을 때 “너희가 그 곳을 진멸하리라” 를 읽을 때 거기에서 복수형인 “장소” 를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이해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중앙 성소에 대한 언급. 그런 다음 그는 이 장에 흐르는 것이 대조이며 그 대조가 가나안 관습과 연관되어 있음을 느낍니다. 너는 그들의 성소를 헐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택하신 중앙 성소에 예물을 가져오라 그는 8절을 읽고 홀와 다처럼 많이 따르지만 그 진술을 단지 제단의 위치보다는 중앙 성소의 위치와 연관시킵니다. 그래서 요르단 횡단 전쟁의 혼란스러운 시기에 컬트가 정상적인 규칙에 따라 운영될 수 없었기 때문에 중앙 성소는 임의의 장소에 배치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이해해요.

그의 결론은 12장이 중앙 성소 문제를 다룬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장을 모든 지역 제단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읽었지만 그는 그것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지역 제단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앙 성소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명기가 하는 일을 책으로 볼 때 두 가지 수준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국가적 수준에서는 하나의 중앙 성소가 있어야 합니다. 지역 차원에서는 많은

제단을 지을 수 있었다. 그는 신명기 12장에서 하나의 중앙 성소가 있어야 하는 국가적 차원을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4. 신명기 16:21; 27:5-6; 33:19 신명기의 중앙에 있지 않은 제단.

신명기 의 다른 부분에서는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 16:21을 보십시오. 이것은 Wellhausen 학교에게는 어려운 일입니다. 본문은 “네가 너를 위하여 쌓은 네 하나님 여호와와 제단 곁에는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목상을 심지 말라” 고 말합니다. 그것은 중앙 성소에 대해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역 제단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제단을 쌓거든 가나안 사람들이 한 것 같이 그 단 가까이 나무를 두지 말라. 신명기 27:5-6,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대하여, “너는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으라. 그 위에는 쇠 연장을 올리지 말지니라.” 그러나 27:5, 6에서는 에발과 그리심에 제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 제단이 아닙니다. 그리고 33:19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백성을 산으로 불러 모을 것이다. 거기서 그들이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인데 이는 그들이 바다의 풍성한 것과 모래 속에 감추인 보화로 잔치를 베풀기 때문이니라.” 그것은 스불론과 북쪽 잇사갈 지파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영토에서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책이 이 문제를 두 가지 다른

수준에서 다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 차원에는 신명기 12장에 하나의 중앙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의 다른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적 차원에는 많은 제단이 있습니다.

5. 출애굽기의 여러 제단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것은 출애굽기에서도 동일한 두 수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성막을 위한 공급을 얻습니다(출애굽기 25-27장).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지시하는 곳이 바로 그곳이다. 그런 다음 36-40절에서는 그것이 실제로 세워졌으므로 국가 차원에서 하나의 중앙 성소, 즉 성막을 갖게 됩니다. 지역 차원에서는 출애굽기 20장 24-26절의 제단법이 있습니다. 물론 레위기에 들어갈 때 당신은 지방적인 수준을 갖게 됩니다. 제사를 드려야 할 다양한 때에 대한 모든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구조를 이해할 때 Wellhausen이 한 일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두 가지 다른 수준을 비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여기가 출애굽기이고, 여기가 신명기입니다. 출애굽기 25-27, 36-40, 그다음 20:24-26, 이것은 신명기 16:21, 27:5, 6, 33:19; 이것은 지역적이며, 그것은 국가적입니다. 이제 그가 말하는 것은 Wellhausen이 한 일은 그가 (B)를 (A)와 비교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두 가지 다른 수준, 즉 출애굽기의 수준과 신명기의 수준을 선택하여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벨하우젠이 모순을 보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래서 벨하우젠이 시도한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적 발전에서 이 두 가지에 다른 위치를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과를 오렌지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B)가 (A)보다 훨씬 더 오래된 것으로 간주되었고, 그 차이를 시간에 따른 발전으로 설명했다.

이제 Pohl이 최근 책에서 제안한 것은 두 수준이 출애굽기와 신명기 모두에 나타나며 컬트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는 규정을 비교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교하려면 동일한 것을 비교해야 합니다. 이것을 지역적인 것과 비교하고 이것을 전국적인 것과 비교하면 통일성과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그것은 신명기 12장에 대한 홀와다의 견해의 수정을 포함합니다. 이 장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그것은 중앙 성소의 문제이지 제단의 다양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을 보는 방법.

6. Pohl & Halwarda 에 대한 Vannoy의 분석

그래서 Pohl은 Halwarda의 견해가 너무 강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폴의 해석이 더 잘 맞는다고 생각한다. 폴은 "내가 내 이름을 두어 거할 곳"이라는 문구에 대해 논의하고, 이 문구가 예배의 중심 성소와 일관되게 사용된다고 느낍니다. 이제 출애굽기 20:24도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거의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확히 같은 표현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은 “내가 내 이름을 기록한 모든 곳에” 라고 말합니다. 매우 가깝습니다. 비슷한 생각이예요. 제 생각에는 제단을 쌓을 장소에 대해 일종의 신성한 지정이 있어야 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이름을 두는 곳” 은 성막이나 성전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법궤는 중앙 성소였습니다.

이제 풀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12장의 8절에서 중앙 성소와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많은 참고 자료를 인용합니다. 전쟁 중에는 이 성소가 옮겨지고 아무데나 놓이게 됩니다. . 그것은 제단의 다양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중앙 성소, 그 장막에 대해서 말하는 것뿐입니다.

7. 높은 곳에서의 토론

나는 당신과 함께 높은 곳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산당에서는 혼합주의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선왕들이 산당을 없애고 있다는 문제가 점점 더 느껴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단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제단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것은 예배를 정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배의 중앙 집중화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립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많은 텍스트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대로 예배해야 합니다. 1년에 세 번씩 큰 축제가 있어서 중앙성전에 간다고 해보자. 신명기에도 있고 출애굽기에도 일년에 세 번씩 “너희의 모든 남자는 여호와 하나님께 보일지니라” 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특히 그러한 경우에는 중앙 성소로 가야 하는 요구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속죄 제물, 속건 제물, 어떤 경우에는든 제물을 바치고 서원을 드리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지역 성소로 갈 수 있었으며 일반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절에 갈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절에 갈 필요는 없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들은 많은 지역 제단에서 어느 정도 직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지만, 주요 절기 때 예루살렘에 갈 때도 사람들과 동행했습니다.

신명기 12장을 합법적인 중앙 성소가 하나 있다고 해석하는 복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무엘의 구절을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나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안식을 주셨다” 고 말한 안식전의 것이라고 설명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신명기 12장은 다윗 다음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여전히 그 체계에 맞지 않는 참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끔찍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제 생각엔 제단이 높은 언덕에 있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때때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교의 산당을 차지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했기 때문에 그것은 불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무엘처럼 높은 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산당에 올라갔으니 높은 산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 같으니라. 내 생각에는 높은 곳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산당들이 혼합주의, 즉 이교 숭배를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정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8. 왕상 15:14, 역대상과의 비교. 14:3 및 대하 33:17

몇 가지 흥미로운 참고 자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4절에는 아사 왕에 대하여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어도 아사의 마음이 평생에 여호와께 온전하였더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역대하 14장 3절을 보십시오. 아사에 대해서는 “그가 이방 제단과 산당을 제거하며 성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고”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산당들을 없애지 않았다고 말하고, 역대기는 산당에 있는 이방 제단들을 없애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내가 보기에 열왕기에는 여호와께서 예배를 받으셨던 산당, 즉 합법적인 산당을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근거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역대하 33:17; 이는 므낫세 때의 일인데 33:17을 보면 “백성이 산당에서 제사를 하되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드렸느니라” 고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높은 곳에서 행해지는 예배의 유형을 구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그것이 반드시 악하거나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아사 연대기에서 읽을 때 그는 산당을 헐었고 열왕기에서는 산당을 헐지 않았다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교 숭배와 관련된 산당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를 섬기는 산당을 떠났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것에 대한 제안일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제단을 많이 두는 것은 금지되지 않았으며 산당 문제는 비록 혼란스러운 일이지는 하지만 그곳에서 행해지는 예배가 여호와를 예배하는지 아니면 혼합주의적인 것인지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 , 이교 숭배.

9. Holwarda 요약: Deut. 12 하나의 합법적인 제단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하고 그만 두겠습니다. 홀와르다는 신명기 12 장이 제단의 다양성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그가 말하는 것은 이 장이 단 하나의 합법적인 제단이 있다고 말하는 방식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지파 어느 곳에서든지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은 그곳이 될 수 있느니라. 출애굽기 20장에 따라 건축하는 규정을 따르면 여러 개의 제단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위치는 임의로 선택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곳이어야 합니다. 해당 규정을 따르는 만큼 제단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10. 폴 Deut. 12 국립 보호소; 지역의 많은 제단

이제 폴이 말하는 것은 이 장이 다양한 제단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 성소의 위치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제단의 다양성 문제도 다루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국가 차원, 중앙 성소만 말씀하신 것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내 이름을 두는 곳, 너희 지파 중 한 지파에 거할 곳이 되리라 하신 것이다. 그 중앙 성소가 위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중앙 성소 문제를 다루는 자료와 지역 상황 및 제사장소와 관련된 출애굽기 자료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곳은 또한 합법적인 희생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이 국가 수준을 이 지역 수준과 비교하고 있는데, 그 결과 갈등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두 책 모두 두 가지 상황을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성막에 관한 자료를 통해 국가적 상황을 다루고 있으며, 물론 레위기에는 유월절과 다양한 절기 및 축제에 대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속죄일은 국가적 차원에 있습니다. 지역적 차원은 제단법이다. 따라서 두 책 모두에 두 가지 수준이 있으며 갈등이 나타나는 것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알았어, 그만하자.

헤일리 포메로이(Haley Pomeroy)가 각본을 맡았습니다.

거친 편집: Ted Hildebrandt

Perry Phillips 박사의 최종 편집

페리 필립스 박사가 다시 해설함

16